

시중 유통 생·선식 3개 중 1개는 위생 불량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30개 제품 중 12개서
식중독균·대장균 검출”

대형마트 등 즉석 제품도

기준치 이상 세균 발견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해야

■대장균·식중독균 검출 업체

상품명(제조원)
대 스프라우트 생식(심포니네이처)
즉석판매제조선식(롯데백화점 분당점)
즉석판매제조선식(AK백화점 분당점)
자연생식(마임)
내용에 좋은 발아 생식(서원조합)
맛있는 자연곡물 생식(오행생식)
아침을 여는 편해식 생식(한솔)
즉석판매제조선식(롯데마트 수지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블랙생선식(얼수)
유기농선식 든든한 아침만찬(형오)



광주 지역 한 유통업체의 선식 판매장. 이 업체는 즉석 판매 제조 선식의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이 확인된 지난 24일부터 분말 형태의 모든 선식에 대한 전열·판매를 중단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식과 선식 제품의 3개 중 1개는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즉석 제조 선식 제품에서도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생식(15개)과 선식(15개) 30개 제품의 위생도를 시험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1.2~20배를 초과하는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이 나왔고,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밝혔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심포니네이처(판매원)의 ‘스프라우트 생식’, 롯데백화점 분당점의 ‘즉석 판매 제조 선식’, AK백화

점 분당점의 ‘즉석 판매 제조 선식’ 등이다.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이 검출된 제품은 ‘자연생식(마임)’, ‘내용에 좋은 발아생식(서원조합)’, ‘맛있는 자연곡물 생식(오행생식)’, ‘아침을 여는 편해식생식(한솔)’, ‘즉석 판매 제조 선식(롯데마트 수지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블랙생선식(얼수)’, ‘유기농선식 든든한 아침만찬(형오)’ 등이다.

특히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 등 유명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즉석 제조 선식 8개 중 4개 제품이 식중독균 및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해 판매하는 선식의 경우, ‘즉석 판매 제조식품’으로 분류돼 개별 제품에 원재료 성분·유통기한 등의 필수 표시사항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선식과 같이 소비자가 구입 후 비교적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하는 ‘즉석 판매 제조식품’도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표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곰팡이독소 시험 결과, 30개 중 1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이 20.85~85.21μ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생·선식 제품에는 곰팡이독소 기준이 별도로 없어 국내 곡류가공품 허용기준치

(200μg/kg)와 비교해 보면 안전한 수준이지만, 이 중 3개 제품은 유럽연합(EU)의 곡류가공품 허용기준치(75μg/kg)를 초과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곰팡이독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잔류농약보다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있다”며 “생·선식과 같이 곡류·두류·견과류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이들 제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개별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완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품 좋아하는 한국인

세금은 “싫어”

인천공항세관 미신고 적발 건수

일평균 200건...5년간 꾸준히 증가

명품 가방>주류>의약품>담배 순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신고, 통관제한 등의 이유로 세관에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명품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2009~2013년 여름 휴가철인 7월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행객으로부터 유치한 ‘주요 물품’ 9만9천399건 중 명품가방이 총 2만7297건(27.5%)으로 가장 많았다.

세관이 분류한 주요 물품은 가방(명품 포함), 시계(명품 포함), 액세서리·벨트 등 기타명품, 의약품, 주류, 담배, 화장품·향수류다.

세관에 유치된 명품가방 수는 2009년 1436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10년 4130건, 2011년 4977건, 2012년 7632건에 이어 작년에는 9122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만 보면 하루 평균 200여건이 적발된 셈이다.

관세법에 따라 해외 여행자가 면세 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여행객이 가산세 납부를 포기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고 임시보관을 요청하면 세관이 해당 물품을 유치한다.

해외에서 이른바 ‘짜퐁’을 사서 들어

오면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유치한다.

같은 기간 명품 시계와 벨트 등 기타 명품 유치 건수는 총 6167건이었다. 이 역시 500건(2009년)에서 1137건(2010년), 1243건(2011년), 1496건(2012년), 1791건(작년)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명품류 외에 주류(2만765건), 불법의약품(2만5780건), 담배(5651건), 화장품·향수류(1652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주류와 담배, 화장품·향수류는 여행객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를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고가 명품류 등의 미신고 적발·유치가 늘면서 세관이 징수한 가산세 역시 2009년 5천500만원에서 2010년 3억2천600만원, 2011년 5억6천900만원, 2012년 11억8천300만원, 작년 20억8천200만원 등으로 늘었다. 2011년부터는 매해 전년의 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고가 사치품의 미신고 사례가 휴가철 특히 빈번하다”며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꼭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금감원, 서류조작 대출 광고 주의보 발령

광고계시글 470개 적발

이용자도 공범으로 처벌

금융당국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류조작 사기대출(일명 작업 대출) 광고가 퍼지자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지난 23일자로 발령했다.

작업 대출은 불법 업자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소득, 재직, 통장 거래 내용 등 개인 정보를 위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서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대출 조작,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인터넷 광고계시글 470개를 적발해 수

사 기간에 통보했다.

작업 대출 광고를 이용하면 불법 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마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뺏길 수 있다. 작업 대출은 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 대출이므로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삭제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구했다.

금융사에는 대출 취급 시 재직 증명, 소득 증명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연합뉴스

영유아·건강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을 12월부터 단계적 시행

유통·판매·소비단계 파악 가능

조제분유 등 축산물은 내년까지

올해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

단 및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식품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 위생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2013년 품목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연매출액 50억원 이상 품목은 올해 12월부터, 연매출액 50억원 미만 품목은 2017년말까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과 슈퍼마켓, 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조제분유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매출규모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단

계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의무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에게 파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 표장에 식품 이력추적관리번호와 로고를 반드시 부착하고 이를 식품 이력관리 사이트(www.tfood.go.kr)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식품의 기본정보와 원재료 정보, 출하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까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Advanced Partner SIEMENS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마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흥 지멘스 상무점 약업진흥사업 501호 농협(온선지점) 이비동감자점